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12. 22.(월)

산업부, 한-이집트 CEPA 협의 가속화로 북아프리카 진출 초석 마련

- 한-이집트 통상장관 회담 개최 -
- 한-이집트 CEPA 협의 가속화로 이집트 정상방문 성과 확산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.22.(월) 하산 엘-카티브(Hassan El-Khatib)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CEPA*)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(화상)을 개최하였다.

*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CEPA,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: 상대국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

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-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. 양국 통상장관은 한-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,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,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하였다.

여 본부장은 “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·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”라며, “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·투자 확대는 물론, 공급망·디지털·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산업부는 한-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, 12.22.(월)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, 장관급 협의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CEPA 개시 준비를 본격화하였다.

미국발 관세조치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, 한-이집트 CEPA는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경제영토를 전격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. 특히, 자동차·반도체 등 우리 주력상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·디지털·인프라 등 신성장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.

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 소통하며, 한-이집트 CEPA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이집트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미 (044-203-5740)
		담당자	사무관	우희승 (044-203-574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